



1월 동향

- 03 2011년도 신년교례회 참석
10 2011학년도 예산조정위원회 참석
12 한국노총경선지부 대표자회의 참석
13 학원정상화 범대위 제25차 회의 참석
13 2011년 대학본부와의 신년회 개최
18 제56차 집행부회의 개최
- 20 학원정상화 범대위 제26차 회의 참석
25 제83회 직원인사위원회 참석
25 제57차 집행부회의 개최
28 2010-2학기 2차 감사처분심의위 참석
31 제58차 집행부회의 개최

알림터

- 정상화 대학원 '진통'은 여전 [한국대학신문, 2011. 1. 25]
사분위 정책에 구경영진 대학 복귀 '탄력'
경영권 놓고 구재단-구성원 간 갈등 지속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8082>
- 대교협 제3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글로벌 시대 대학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전략
주제 I : 대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현황과 발전 방안
주제 II : 교수학습개발 연수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주제 III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중앙지원기구 구성과 역할

http://www.kcue.or.kr/bbs/download.php?path=pds&file_name=제31회 정책포럼_자료집.pdf

- 사학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대학경영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방안 연구
대학의 지구노력 확대방안 중의 하나로 경영컨설팅 활성화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 타당성 분석 및 재단의 사업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실시
<http://www.kfpp.or.kr/SGBoard/download.asp?no=349&bno=16&mbid=BOOK01>
- "전환기 맞은 대학들, 어느 해보다 빠른 변화 이어질 것" [교수신문, 2011. 1. 17]
2011년, 새해 총장선선사 화두는?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2244>

새해초! 새작목!

퍼스널 브랜딩 (Personal Branding)

'나'도 하나의 '상품', 효과적인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다

세상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기업의 경영 환경은 숨 막히게 치열한 속도전과 생존 경쟁의 블랙홀로 내몰리고 있다. 인간의 일거리를 무서운 속도로 자동화 시스템이, 컴퓨터와 인공지능 로봇들이 잠식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슬프고도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라는 줄고, 인간수명은 급속히 늘어가는 말 그대로 노동의 공급 과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치 산업시대를 거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케팅'의 시대로, '브랜드'의 시대로 변화해 온 벤치사와 같이 각 개개인들도 이제 스스로를 '마케팅'하고 '브랜드화' 하여 이 무한 경쟁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시대를 맞은 것이다.

【퍼스널 브랜딩 원칙1】 눈에 띄는 존재, 무언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일을 잘 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즘은 창의성이 충성심보다 중요하며, 무작정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개별적인 특성이 중요하고, 위계질서는 희미해지고 업무 성과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면, 회사 내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졌다면 남들 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 내고, 남들 보다 두드러지고, 특별한 무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즉 어떤 분야 어느 위치에서든 성공하려면 기억에 남을 만한 독특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남들과 차별화 되고 특별한 자신만의 업무 스타일, 행동, 태도 등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퍼스널 브랜딩 원칙2】 스스로의 상사가 되어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회사의 CEO나 임원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나 외부 요인이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는 매우 어려서인 일이다.

외부요인은 스스로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며 따라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성공의 잣대가 결정 되면 항상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스스로가 자신의 상사가 되어 주체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고 기회를 찾고,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스스로를 나타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독특한 자질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동안 자신의 승진에 지대한 영향을 준 역이 회사를 떠난다 해도 미래가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은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스스로의 자산을 개개인이 책임지고 잘 활용하고 관리해야만 한다.

【퍼스널 브랜딩 원칙3】 사다리라는 잊어라! 이제는 오르막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경력관리를 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당한 위치가 되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다음 칸에 올라갈 수 있는 현실 안주형 사다리 경력관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자기만족에 빠지게 되고 어떤 일이 생겨야 경력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 부랴부랴 이력서를 수정하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더불어 인사 담당자에게 선을 대고 자신의 경력을 소개 할 마케팅 자료를 다듬느라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런 사다리를 경력관리는 직업 세계가 예측 가능했던 시절에나 통하는 방법들이다. 요즘 같은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사다리'의 개념을 지워 버리고 경력관리를 하나의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숨 없이 차근차근 원하는 목표를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다.



【참고도서】 차이의 전략
(윌리엄 이무타 / 커스틴 디크슨)

【퍼스널 브랜딩 원칙4】 브랜드처럼 생각하라!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늘 차별화와 핵심 가치의 체계화에 젖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하며 그런 전략을 수립, 집행한다. 자신의 브랜드화도 마찬가지다. 다만 기업 브랜드에는 보통 수많은 광고 전문가와 거액의 마케팅 예산이 필요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24시간 내내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다. 매일 매일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 자신의 가치, 목표, 능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자신만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보유한 브랜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그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HAPPY NEW YEAR



2월의 생일자

02.03	김 상 곤	교육혁신팀
02.05	김 영 준	정보통신운영팀
02.06	김 석 범	교육혁신팀
02.07	박 해 진	사범대학
02.08	김 병 래	입학사정관팀
02.10	서 동 현	정보통신운영팀
02.10	김 언 미	정보화개발팀
02.10	김 동 환	비서팀
02.10	심 선 미	교직원팀
02.11	이 상 일	취업지원팀
02.12	석 경 호	국제교류팀
02.13	김 종 호	그린캠퍼스팀
02.14	이 철 환	학생지원팀
02.14	이 승 철	구매팀
02.15	오 창 룡	그린캠퍼스팀
02.15	김 종 구	홍보팀
02.17	장 성 대	도서정보팀
02.18	김 영 속	학생지원팀
02.19	차 은 희	경상대학
02.20	김 윤 태	생활체육교육센터
02.21	박 원 형	학생지원팀
02.22	이 은 경	경리팀
02.22	손 대 영	기획팀
02.24	남 윤 순	수업학적팀
02.25	이 용 국	정보화개발팀
02.27	김 경 자	재활과학대학
02.28	박 진 호	관재팀
02.28	이 건 희	도서정보팀
02.29	김 욱 진	취업지원팀

*생일자는 주민번호 앞자리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변화의 시작! 도전의 중심! Energy4U

기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고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12대 노동조합위원장 양 춘 호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http://union.daegu.ac.kr>